



# 2009년 하반기 국제통상환경 전망

## 무역투자정책실

1. WTO/DDA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2. 세계 지역무역협정 추진동향 및 전망
3. 무역 현황 및 전망
4. 투자 현황 및 전망

### 주 내 용

- ▶ WTO/DDA 협상은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 이후 최근에는 미국이 대외통상정책 관련 조직의 준비를 마쳤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모호한 상태이어서, 2009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주요국 정상 또는 통상장관들의 회담을 통해 주요국의 정치적 타결의지가 확인된다면 2009년 12월 초로 예정된 정례 각료회의를 계기로 세부원칙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2009년 신규로 WTO에 통보·발효된 지역무역협정은 14건이며 현재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9년 하반기에도 FTA 체결 및 발효 건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경기침체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 내수 진작 외에 수출시장에서 자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 2009년 1~5월간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4.7%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여, 141억 9,707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2009년 하반기에 세계 경기, 유가, 환율 등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출입 모두 감소세의 둔화가 예상되나 수출보다는 수입 감소의 둔화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하반기 무역수지는 상반기에 비해 흑자폭이 크게 감소하거나 일시적으로는 무역적자로의 반전 가능성도 있으나, 연간 무역수지는 3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2009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46.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제회복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인투자유치 규제개혁, 인센티브 및 추진체계 개선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금년 목표인 125억 달러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한국 및 전 세계의 실물경제여건이 2008년 4/4분기부터 악화되어 2009년에도 기업이 투자를 유보할 가능성이 크나,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 M&A에 힘입어 2009년 말 해외투자 감소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1. WTO/DDA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가. WTO/DDA 협상 최근 동향

- 2009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DDA의 조기 재개가 논의되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DDA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DDA 협상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9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이후 라미 WTO 사무총장은 주요국을 방문하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DDA의 재개를 통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하였으나 DDA는 여전히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DDA의 핵심 축인 미국의 신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 및 의회 비준에 일차적인 관심을 둔 결과 DDA를 포함한 대외통상정책의 방향 정립이 늦어지면서 DDA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였음.
- 다만 2009년 상반기에 라미 WTO 사무총장의 재임이 확정되었고, 농업 및 NAMA 등 DDA 핵심 협상그룹의 의장이 교체되면서 향후 DDA의 본격 가동을 위한 내부 조직정비는 완료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음.
- WTO 일반이사회(GC)가 라미 사무총장의 재임을 만장일치로 확정(2009. 4. 30)함으로써 DDA의 연속성 유지가 보다 수월해졌음.
- 또한 지난 가을 NAMA 협상그룹의장이 스위스 제네바 대사인 바셰샤로 교체되었으며, 농업협상그룹 의장도 올해 4월에 뉴질랜드의 신임 제네바 대사인 워커(David Walker)로 교체되었음.
- 아울러 6월 중순 케언즈그룹 각료회의(인도네시아, 발리)와 OECD 각료회의를 통하여 주요국 통상장관들 사이에서 DDA의 조기 재개 및 타결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는 있음.
- 한편 일반이사회는 지난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이후 개최되지 못했던 각료회의를 오는 11월 30일~12월 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할 것을 확정하였음.

- 제7차 각료회의는 이전 각료회의와 달리 일반 의제로 WTO, 다자무역체제, 현재의 세계경제환경에 대한 평가 등을 채택하고 있어 과거와 달리 DDA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나. 2009년 하반기 DDA 협상 전망

- 재임에 성공한 라미 사무총장은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DDA의 해결책으로 'Two-track approach'를 제시하면서 회원국의 반응을 점검하고 있음.
- Two-track approach란 현재와 같이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다자적 기술적 협상을 계속해 나가면서(track 1) 동시에 협상성과를 사전 점검하여(outcome-testing) 양자/복수국간 협상을 추진해 나가는(track 2) 것을 의미함.
- 이때 성과점검은 사실상 지금까지 제시된 세부원칙 수정안에 기초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접근방식은 사실 미국의 신행정부가 제시한 것임.
- 미국의 론 커크(Ron Kirk) USTR 대표는 현재의 세부원칙 수정안이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에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줄지 매우 불확실한 반면 보조금 감축부문에서 미국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확실하기 때문에, DDA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은 각국이 연습용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양자/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DDA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그러나 브라질, 중국, 인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Two-track approach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 DDA 협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협상그룹별로 기 제시된 세부원칙 수정안을 놓고 기술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함께 라미 사무총장이 제시한 Two-track approach도 병행해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그렇다고 해도 DDA 협상이 2009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미국은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 이후 최근에는 대외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관련 조직의 정비를 마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방향은 모호한 상태임.
  - 특히 DDA 타결의 핵심 전제인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획득 전망도 여전히 불확실하며, 현재 새로운 TPA에 대한 입안조치 되지 않고 있어 2009년 내 새로운 TPA를 의회로부터 받아내기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임.
  - 인도도 최근 총선을 끝내고 통상장관의 교체 등 신통상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2009년 가을이 되어야 DDA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EU도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DDA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다만 7월 10일 G-8 확대정상회담에서 2010년에 DDA를 타결 짓자는 정치적 의지를 선언한 바 있고, APEC 통상장관회담(8월), G20 정상회담(9월) 등 주요국 정상 또는 통상장관들의 회담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어 이를 통해 주요국의 정치적 타결의지가 확인된다면 2009년 말 세부원칙 합의의 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 경우 12월 초로 예정된 정례 각료회의가 연장되면서 세부원칙 합의를 위해 DDA 협상의 핵심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들어 추가적으로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14건으로 GATT 제24조에 의거한 상품무역협정이 7건, GATS 제5조에 의거한 서비스 협정이 6건,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Enabling Clause)이 1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2009년 WTO에 통보된 신규 RTA

관련 조항	협정	WTO 통보일	발효일	협정 유형
GATT 제24조	미국-오만	2009.1.30	2009.1.1	FTA
	미국-페루	2009.2.3	2009.2.1	FTA
	터키-그루지야	2009.2.18	2008.11.1	FTA
	중국-싱가포르	2009.3.2	2009.1.1	FTA
	호주-칠레	2009.3.3	2009.3.6	FTA
	파나마-코스타리카	2009.4.7	2008.11.23	FTA
	중국-뉴질랜드	2009.4.21	2008.10.1	FTA
GATS 제5조	미국-오만	2009.1.30	2009.1.1	EIA
	미국-페루	2009.2.3	2009.2.1	EIA
	중국-싱가포르	2009.3.2	2009.1.1	EIA
	호주-칠레	2009.3.3	2009.3.6	EIA
	파나마-코스타리카	2009.4.7	2008.11.23	EIA
중국-뉴질랜드	2009.4.21	2008.10.1	EIA	
Enabling Clause	칠레-인도	2009.1.13	2007.5.17	PTA

주: 1) 개도국간 특혜협정(Enabling Clause)은 개도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협정으로서 GATT 제24조 또는 GATS 제5조의 조건 즉,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및 서비스의 자유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됨.

2) FTA: Free Trade Agreement, 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2007.7월 통계부터 서비스협정(service agreement)이 EIA로 개칭됨.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 2. 세계 지역무역협정 추진 동향 및 전망

### 가. 세계 RTA 추진 현황

- 2009년 5월 29일 현재 지역무역협정은 누계기준으로 총 247건에 달하고 있음(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기준).
- 247건의 지역무역협정(RTA) 가운데 GATT 제24조에 의거한 상품무역협정이 152건(FTA 139건, CU 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GATS 제5조에 의거한 서비스무역협정이 67건, 개도국간 특혜협정이 28건을 차지하고 있음.

- 2009년 5월 현재 주요국들의 FTA 추진 현황은 [표 2]와 같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FTA 추진이 인접국에서 벗어나 타 대륙 국가들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및 자원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원보유국들과의 FTA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세계 주요국들의 FTA 추진 현황(2009. 5 현재)

국가	기체결 FTA	협상 중인 FTA	검토 중인 FTA
미국	NAFTA, 미국-CAFTA-DR,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한국, 호주	FTAA, SACU, 말레이시아, UAE, 에콰도르, 태국	뉴질랜드, 대만, 이집트, 베트남, 쿠웨이트, 파키스탄
캐나다	EFTA,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FTAA, CACM, MERCOSUR, 도미니카공화국, 한국, 싱가포르, 파나마	안데안공동체, CARICOM, EU, 일본, 태국, 인도
MERCOSUR	멕시코, 이스라엘, CAN, 인도, 칠레	EU, GCC, 모로코, MERCOSUR-인도-SACU, 캐나다	EFTA, SACU, 미국, 한국, 중국
EU	EFTA, 남아공,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시리아, CARIFORUM, PLO,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안도라(CU),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크로아티아, 터키, 튀니지	ACP, GCC, MERCOSUR, 이란, 한국, CAC, CAN, ASEAN, 리비아, 몬테네그로, 베트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이라크, 인도, 콜롬비아, 페루	싱가포르, 일본,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
한국	ASEAN, EFTA, 미국, 싱가포르, 칠레	EU, GCC, 뉴질랜드, 멕시코, 인도, 일본, 캐나다, 페루, 호주	MERCOSUR, 러시아, 중국, 콜롬비아, 터키
중국	ASEAN,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GCC, SACU, 아이슬란드, 호주, 코스타리카	인도, 한국, MERCOSUR, 스위스, 남아공
일본	ASEAN,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필리핀	GCC, 스위스, 인도, 한국, 호주	대만,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EU
호주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칠레, 태국,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ASEAN	UAE, GCC,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멕시코, 인도, PIF, TPP,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Trans Pacific SEP, 싱가포르, 중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호주ASEAN	GCC, 말레이시아, 한국, 홍콩	멕시코, 미국, 인도, 일본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fta.kita.net>)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

## 나. 세계 RTA 추진 전망

■ 연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영향으로 세계 각국의 RTA 추진 움직임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오히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각국의 FTA 정책 추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경기침체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 내수진작 외에 각국은 수출시장에서 자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9년에 추가적으로 발효가 예상되는 FTA로는 일·베트남 EPA, 중·싱가포르 FTA 및 중·페루 FTA, 캐나다·콜롬비아 FTA 및 캐나다 페루 FTA 등이 있음.

- 또한 2009년내 타결이 예상되는 FTA로는 한·EU FTA, 한·캐나다 FTA, 일·호주 EPA, 일·인도 EPA, 일·스위스 EPA, 중·GCC FTA 및 중·ASEAN 투자협정 등이 있음.

- 아울러 2009년내 협상이 새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FTA로는 한·콜롬비아 FTA, 한·터키 FTA, 중·인도 FTA, EU·캐나다 FTA, EU·페루 FTA, 캐나다·인도 FTA 및 인도·뉴질랜드 FTA 등이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FTA 추진과 관련하여 최대 관심사항 가운데 하나인 한미 FTA 비준은 양국 비준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나, 양국 통상장관이 적기 발효에 대한 협력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연내 비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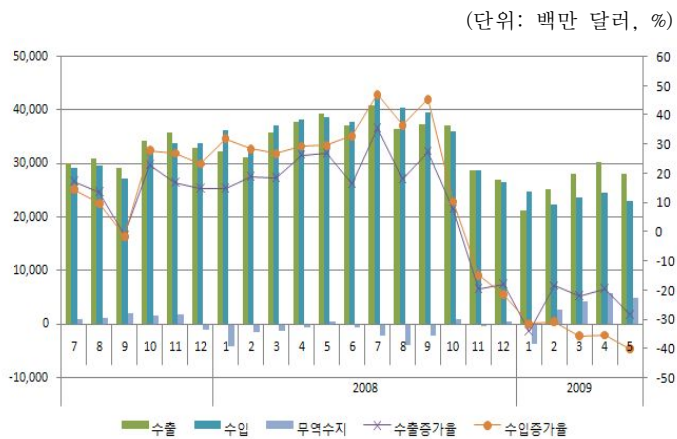
- 또한 한·EU FTA 협상은 관세환급 문제에 대하여 양측이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지난 7월 13일 사실상 타결되었으며, 일본과의 FTA는 금년 여름 심의관급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이미 한 차례 결렬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협상개시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3. 무역 현황 및 전망

#### 가. 무역 현황

- 2009년 1~5월간 우리나라의 수출은 1,330억 9,514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7%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35.0% 감소한 1,188억 9,807만 달러로 141억 9,707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2008년 11월 이후 월별 수출입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수입이 수출보다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소위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임.
-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어 보면, 2009년 1~5월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해 89억 4,523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개도국에 대해서는 231억 4,23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흑자가 선진국에 대한 적자를 상쇄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수출입 동향



주: 왼쪽 축은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백만 달러), 오른쪽 축은 수출 및 수입 증가율 단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동 기간 대선진국 수출은 404억 1,091만 달러(전년동기대비 -28.3%), 대개도국 수출은 926억 8,423만 달러(-22.9%)로 대개도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임.
- 국별 수입 감소는 선진국에서 미국(-37.3%), 일본(-31.5%), EU(-31.0%); 개도국 가운데는 중국(-35.8%), ASEAN(-27.1%), CIS(-45.1%), 대만(-29.1%) 등이며, 유가하락으로 중동(-46.7%)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감함.

- 주요 품목별로는 2009년 1~5월간 선박을 제외한 모든 품목군의 수출 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석유제품(-47.9%), 자동차(-45.1%), 컴퓨터(-44.7%), 반도체(-34.5%) 등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한편 동 기간 원유 수입액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53.7%), 석탄(5.3% 증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 감소 현상이 나타남.

#### 나. 무역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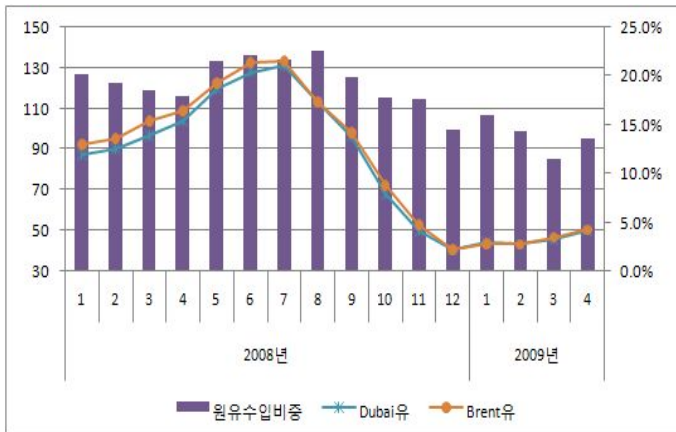
- 최근 World Bank는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3%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급속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09년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는 세계경기 침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한 하반기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Global Insight와 OECD는 각각 2009년 전세계 무역량이 12~13% 감소할 것으로, UN(5월 27일 발표)은 1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선진국 가운데는 경기침체가 심각한 일본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EU 등 다른 선진국에 대한 수출 역시 하반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인도, ASEAN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러시아와 CIS 지역에 대해서는 고전이 예상된다.
- 대개도국 무역수지 흑자로 대선진국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하는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특성상,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세계경기 전망만을 근거로 본다면 하반기에도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들어 원자재 수입이 급감하고 있으며 자본재도 전년동기 대비 하락세가 높은 반면, 소비자재 수입의 감소세는 크게 줄고 있음. 이는 투자와 생산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소비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하반기 우리나라의 수입과 무역수지에 가장 큰 변수는 유가임.

- 상반기 수입액 급감에는 원유 도입단가의 하락이 크게 영향을 미침. 유가는 2008년 배럴당 평균 99.2달러에서 2009년 3월 44.3달러로 급락한 바 있으나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CERA(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의 2009년 연평균 유가 전망치는 공급부족 상황일 경우 배럴당 두바이유는 65.5달러, 브렌트유는 67.7달러이며, 공급부족 상황이 아닐 경우 배럴당 두바이유는 55.7달러, 브렌트유는 57.4달러로 구분하여 추정됨.
- 2009년 5월 이후 유가가 배럴당 70, 90, 110달러일 경우를 가정하고 2008년 수입물량 기준으로 추정한 하반기 원유 수입액은 월별로 각각 47~53억 달러, 60~68억 달러, 74~83억 달러임. 이는 2009년 4월의 무역흑자 57.9억 달러 대비 월별 무역수지가 각각 12~18억 달러, 25~33억 달러, 39~48억 달러 감소함을 의미함.
- 위의 추정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학제품 수출가격 상승분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그 밖의 수출입 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추정치임.

그림 2. 유가와 원유수입 비중(전체수입 대비)의 변화 추이  
(단위: 달러, %)



주: 좌측은 유가, 우측은 원유수입 비중.  
자료: 한국석유공사, 한국무역협회.

-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에 큰 영향을 주었던 환율효과의 반전이 약 3개월의 시차를 두고 3/4분기 이후부터 나타나면서 하반기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수출기업의 환헤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환율에 대한 수출 민감도가 크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여파로 2008년 3/4분기 이후 수출기업의

환헤지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최근의 환율 변동 폭을 감안할 때 환율 급락 시 수출기업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됨.

- 세계경기, 유가, 환율 등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출입 모두 감소세의 둔화가 예상되나 수출보다는 수입 감소의 둔화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경제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경제회복의 속도도 빠른 편에 속해 있어, 만일 2009년 말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개선되고 환율하락과 유가상승이 동반될 경우 수입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어 하반기에는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유가 급등 시에는 수입 급증으로 이어져 하반기 무역수지는 상반기에 비해 흑자폭이 크게 감소하거나 일시적으로는 무역적자로의 반전 가능성도 있으나, 연간 무역수지는 3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감지되고 있으나 G20, WTO 등에서의 국제공조와 과거 대공황의 경험 등으로 인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하반기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4. 투자 현황 및 전망

### 가.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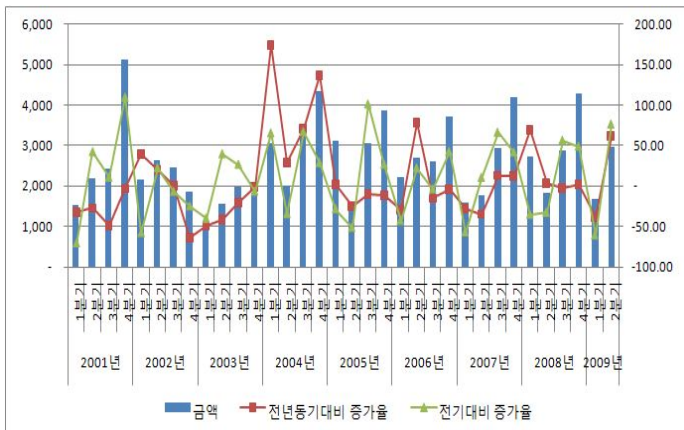
- 2009년 상반기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46.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1/4분기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8.2% 감소한 16.8억 달러였으나 2/4분기에는 29.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62.0%, 전기대비 76.9% 급증하였음.
- 국가별로는 엔고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EU와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감소하였음.
- 2009년 상반기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82.9% 증가한 11.8억 달러였으나 EU에 의한 투자는 18.0억 달러(영국 9.1억 달러), 미국에 의한 투자는 6.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2%, 12.8% 감소하였음.

- 2001년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893억 달러로 EU(330억 달러), 미국(230억 달러), 일본(126억 달러)에 의한 투자가 7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2009년 상반기에는 홍콩으로부터의 투자가 6.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4.0% 급증하였음.

그림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만 달러, %; 신고금액기준)



주: 금액은 왼쪽, 증가율은 오른쪽임.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정보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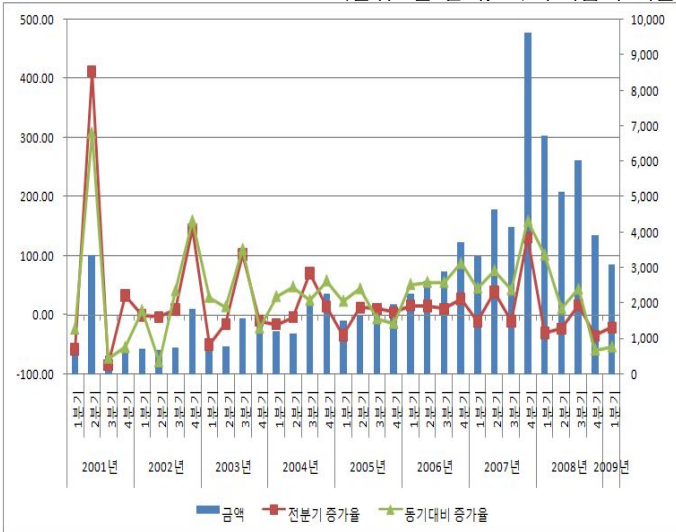
- 산업별로는 2009년 상반기 전자·전기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16.7억 달러였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 유통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한 29.5억 달러였음.
- 제조업 중 주요 투자산업인 전기·전자(8.6억 달러), 비금속광물(3.2억 달러), 기계·장비(1.4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32.0%, 26.2%, 37.1% 증가하였음.
-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 유통에 대한 투자가 12.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24.7%로 급증하였으며 부동산·임대(2.6억 달러), 운수·창고(1.3억 달러)에 대한 투자 역시 전년동기대비 각각 7.8%, 63.0% 증가하였음. 전통적으로 투자가 활발했던 서비스산업 중 하나인 금융·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6.6% 감소한 9.9억 달러임.
- 2009년 상반기 주요 대한(對韓) 투자국인 미국, EU와 일본으로부터의 산업별 투자 현황을 보면 미국과 EU는 서비스업, 일본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편중되어 있음.

- 미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5.1억 달러(전체 투자의 85.0%)로 이 중 금융·보험이 2.5억 달러(전체 투자의 41.8%), 비즈니스서비스는 1.5억 달러(전체 투자의 24.8%)이며, EU의 경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14.7억 달러(전체 투자의 81.7%) 중 도·소매유통이 10.8억 달러(60.2%), 금융·보험이 2.4억 달러(13.3%)임.
- 이에 반해 일본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10.7억 달러(전체 투자의 90.9%)로 이 가운데 전기·전자가 6.3억 달러(전체 투자의 53.7%), 비금속광물이 3.0억 달러(전체 투자의 25.8%)임.
- 2001년부터 2009년 2/4분기까지의 투자 현황과 2009년의 상반기 국가별 산업 투자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9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경우 금융·보험과 비즈니스서비스의 투자가 증가하였고 도·소매 유통과 문화·오락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였으며, EU는 도·소매 유통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고 금융·보험의 투자는 감소하였음. 또한 일본의 경우 전자·전기, 비금속광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더욱 확대된 것이 특징임.

- 2009년 상반기 M&A형 투자는 2/4분기에 투자가 급증하여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한 15.5억 달러였으며 Greenfield형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한 30.9억 달러를 기록함.
- 2001년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M&A형 투자는 319억(전체 투자의 35.7%), Greenfield형 투자는 574억 달러(전체 투자의 64.3%)임.
- 한편 2009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는 3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3.9%, 전기대비 21.2%로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
-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전년동기대비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4분기에는 59.2%, 2009년 1분기에는 53.9%가 감소함.
- 다만 국가별로는 중국 및 미국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활발함.
- 2001년부터 2009년 1/4분기까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861억 달러) 가운데 중국(220억 달러)과 미국(172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45.6%에 달함. 2009년 1/4분기의 해외직접투자 역시 중국(4.5억 달러) 및 미국(11.5억 달러)으로의 투자가 많았음.

그림 4.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천 달러, %; 투자금액 기준)



주: 금액은 오른쪽, 증가율은 왼쪽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www.koreaexim.go.kr/kr/oeis/m03/s01.jsp>).

-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1억 달러)에,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5.8억 달러)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이외 투자가 활발한 산업은 제조업의 경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7억 달러)이며, 서비스업의 경우 부동산업 및 임대업(2.2억 달러)임.
- 2001년부터 2009년 1/4분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의 경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투자금액이 101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의 투자금액이 124억 달러로 가장 많음.
-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대한 최근 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많음.
- 주목할 점은 2008년에 급격한 투자 증가를 보인 광업, 도매 및 소매업은 2009년 1/4분기에도 비교적 양호한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6.0%에서 2009년 1/4분기 26.6%로, 도매 및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6%에서 18.7%로 각각 상승함.
- 그러나 2008년에 급격한 투자 감소를 보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09년 1/4분기에도 감소하는 투자실적을 보이는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2009년 1/4분기에 투자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8.1%에서 2009년 1/4분기 5.7%로 감소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3.7%에서 5.5%로 소폭 증가함.

- 2001년 이후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산업별 투자를 보면 중국으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미국으로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이 특징임.

- 제조업의 경우 양국 모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미국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중국으로는 금융 및 보험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음.

- 최근 해외직접투자에서 괄목한 만한 특징은 M&A형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임.

- 해외직접투자에서 M&A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6%로 미미하였고 2002년 이후 10%대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31.4%, 2009년 1/4분기에는 41.0%로 급격히 증가함.

#### 나. 투자 전망

-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1/4분기까지 세계 총 외국인직접투자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 세계 투자전망 역시 긍정적이지 않음.

- UNCTAD(2009)에 따르면 세계 총 외국인직접투자는 2008년 4/4분기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09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4%까지 감소하였음. 특히 M&A형 투자의 감소폭이 더욱 커 2009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77%까지 급감함.

- OECD(2009)에서도 OECD 17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가 2009년 1/4분기에 가속화되어 2008년 4/4분기 대비 50%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하락 속도가 지속될 경우 2009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약 5,000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경간 M&A 투자는 2009년 상반기 OECD 회원국의 경우 2007년 대비 60%까지 감소하였음.



- 불경기로 인한 시장기대 심리 악화, 신용/대출 기준 강화, 주식시장 쇠퇴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외국인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자와 같은 자산투자(equity investment)보다는 파트너십이나 라이선싱과 같은 비자산 진입 모드(non-equity entry mode)에 보다 의존할 가능성이 큼.

○ 실제로 UNCTAD의 "World Investment Prospect Survey 2009~2011"에 의하면 다국적기업의 2/3가 2009년도에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지출비용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나라의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제회복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인투자유치 규제개혁, 인센티브 및 추진체계 개선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금년 목표인 125억 달러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한국 및 전 세계의 실물경제여건이 2008년 4/4분기부터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09년에도 기업이 투자를 유보할 가능성이 큼.

- IMF는 4월 중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침체, 국제교역규모 급감, 가계 및 기업의 부도위험 등을 위협요소로 제시함으로써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0.5%에서 3개월 만에 -1.3%로 하향조정함.

- 글로벌 실물경제의 침체는 2009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3.9% 감소한 우리나라 해외투자 현황에도 반영됨.

■ 그러나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 M&A에 힘입어 2009년 말 해외투자 감소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Greenfield형 해외투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대기업 중심의 대형 해외 M&A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해외투자 총액의 감소세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KIEP**

## ■ 참고문헌 ■

UNCTAD. 2009. "Global FDI flows halved in 1st quarter of 2009, UNCTAD data show; prospects remain low for rest of year." Press Release.

OECD. 2009. "International Investment Flows Collapse in 2009." *OECD Investment News*, issue 10.(June)

## 연구진

김준동 무역투자정책실장

(jdkim@kiep.go.kr, Tel: 3460-1028)

서진교 연구조정실장

(jksuh@kiep.go.kr, Tel: 3460-1156)

정철 무역투자정책실 WTO 팀장

(cchung@kiep.go.kr, Tel: 3460-1184)

현혜정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hjhyun@kiep.go.kr, Tel: 3460-1050)

이경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khyi@kiep.go.kr, Tel: 3460-1083)

김정곤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jgkim@kiep.go.kr, Tel: 3460-1093)

김혁황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hhkim@kiep.go.kr, Tel: 3460-1135)

김민성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mskim@kiep.go.kr, Tel: 3460-1113)